

<제 66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응원꾸러미 1,000상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하기 위한 5천만원 상당의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뿌리 내리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지역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응원꾸러미' 1,000상자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지역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는 건강식품과 간식, 즉석식품 등 총 16종의 응원 물품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는 광주광역시를 통해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 우송정보대학과 전문인력 육성 산학협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우송정보대학과 타이어 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베트남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산학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후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부식품세트를 전달하며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는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 창립 19주년 기념식 · 포럼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은 지난달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제224회 산학협동포럼을 광주 동구 무등파크호텔 컨벤션A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순이 삼성생명 상무이사, 유동기 (주)알트론 대표, 최승식 남부대학교 교수에 각각 공로상이 수여됐고 산학협동포럼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박광태 대표이사가 '상생의 일터!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해양에너지

◆ ‘사고 Zero’ 결의대회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최근 임직원들과 '사고 Zero 및 ESG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직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사 대표가 함께 '사고 Zero 및 ESG경영 목표와 방침'을 선포했다.

특히 직원 대표가 경영목표와 경영방침 10개 항목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 '사고 Zero 및 ESG경영 실천' 결의문을 선서하고 실천 결의 서약서를 노사 대표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중장년센터 제3,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4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01.24 ~ 02.04)	
01.24(월) * 광주노사민정협의회 2022년 1차 본회의	01.27(목) * 서구청 대체인력 채용 면접심사
01.25(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1기 드림터 선정회의	01.28(금)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01.26(수) *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이사회	02.05(토) * 박병규 전,경제부시장 출판기념회

Ⅲ. 노사 및 법제동향

1. 노사 동향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방문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 표명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여전히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지역분포 가중치 적용 대상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 3 17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손경식 경총 회장은 1. 27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근면위 논의사항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하고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

-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로벌스탠다드’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약 21% ~ 24% 만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 한다는 입장 전달
- 또한,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은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편향된 입장 발표를 기초로 해서 이뤄진 만큼,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우려를 전달

- 한편, 경총은「근로시간면제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발표(1. 26)

[참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의 문제점 주요 내용

요구안	문제점	주요 내용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에 반(反)하는 요구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함.

요구안	문제점	주요 내용
	기술발전 등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요구	▲ 현재는 SNS 등 통신수단, KTX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전해 과거에 비해 조합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 노조업무 종사자들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노조업무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근로시간면제자 폭증 우려	▲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① 조합원 '5,0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Full-Time 근면자 1명, ② 조합원 '5,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Full-Time 근면자 2명을 요구하는 것과 사실상 같음.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기업의 부담 가중	▲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수는 약 6,500여개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면자에 추가로 약 6,500명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근로시간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 단체교섭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추가 부여'가 쟁점이 되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고용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고용부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 제공 등이 포함된「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 고용부는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
 - 또한,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법 교육 콘텐츠 등도 지원할 계획
-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022년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2. 법제 동향

■ 김희재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근로자 이외에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 (주요 내용)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5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박대출 의원(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0)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 가능
 -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주요 내용)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개정

■ 박대출 의원(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0)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

-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 지원

■ 오영훈 의원(민),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25)

- (발의 이유)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정법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

■ 강민정 의원(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 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는 상황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 (주요 내용)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정부에 중대재해예방기금을 마련, 운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
 - 또한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양형 절차 특례, 직무유기죄를 범한 공무원 처벌, 법정형의 하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 조수진 의원(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 혼선 야기
- (주요 내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